

## Chapter 3

# English or Korean?

### 제 3 장 / 영문이나 국문이나?

과학 논문에서 언어는 이미 영어로 판가름 나서 1990년대부터는 프랑스나 독일의 학술지도 대부분 본문을 영어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Yonsei Medical Journal, 1986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986년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1987년 The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등이 창간되어 1980년대 주요 영문 학술지이었다.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1996년부터 국영문학술지에서 변신하여 영문으로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을 발행하였고, 이후 영문 학술지는 점점 늘어나 2009년도에는 의편집 회원 단체 발행 학술지 중 영문 학술지는 31종이었다. 새로 영문학술지를 창간하거나 기존 학술지를 영문으로 전환하여 발간하는 추세는 점점 늘고 있어 2010년에는 60종이 영문으로 발간하리라 여긴다. 2011년에는 100종 이상이 영문으로 발간하리라 여긴다.

만약 학술지 논문을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산한다면 당연히 영문이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단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산한다면 국문을 고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문으로 발행하면서 국제학술지로 키우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비록 국문으로 SCIE 학술지가 되었다더라도 영향력지표를 높이려면 반드시 영문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해당 범주 학술지 가운데서 영향력지표로 하위권에 위치한다면 아마도 편집인이나 회원은 실망을 하고 이 영향력지표를 올릴 것을 편집인에게 요구할 것이다. 연구자가 전문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국문 논문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내 연구자의 인용으로만 영향력지표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국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 쉽고 영문이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이면 국문이건 영문이건 보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 이미 우리 의학연구 사회의 보편적인 사실이다. 우리나라 논문의 참고문헌의 90%가 국제학술지이므로 영문 논문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 고유 의학정보를 국문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과학적인 내용이라면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설문 등의 내용은 부록으로 국문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최근에 Thomson Reuters에서 지역 학술지(regional journal, local journal) 우대 선정 정책을 펴서 국문학술지 가운데 높은 수준의 학술지가 SCIE 학술지가 되었으나 언제까지 그런 우대 정책을 펼다는 보장이 없다. 많은 의학 분야도 토착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인류에 보편적인 질환을 다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이제 국제 의학기술이나 정보시장에서 선도자이기에 우리 문제 해결이 결국 인류의 문제 해결이라면 반드시 영어로 그 내용을 국제 의학정보시장에 알리는 것이 의무이다. 국제학술지로의 성장은

바로 사용되는 언어와 직결되므로 사용 언어를 잘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 학회에서 국문학술지로 SCIE 학술지로 가는 경우가 있기에 그대로 국문 학술지로 계속 유지하지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문 학술지로 SCIE 학술지로 간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 물론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처럼 학술지 독자를 우리나라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인 내용보다 최근 의학계 동향이나 평생교육용 기사가 중요한 학술지는 원래 목적에 따라 계속 국문으로 발행하고 필요하면 일부 영문 원고를 선별하여 신는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외 대부분의 전문 분야 학술지는 독자를 국내 연구자로만 한정할 때 자기인용(self-citation)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인위적인 자가 인용 상승 정책을 펴지 않기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 상황은 일부 국문 SCIE 학술지가 Journal Citation Reports 영향력지표에서 자기인용이 50% 이상이고 어떤 경우 70% 이상인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자기인용은 나중에 학술지 평가에서 불리하다. 가능하다면 전체 인용의 20% 이하에서 자기인용이 바람직하다. 이미 2008년도에 국내 과학 분야 학술지 몇 종이 지나치게 높은 자기인용률로 인하여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목록이 삭제되었다. 또한 자기인용을 포함하여도 영향력지표가 0.2 이하로 나온다면 대개 해당 학문 범주(category)에서 최하위권이다. 학술지의 국제 유통을 고려한다면 과학 학술지는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국문학술지인 경우는 Medline 등재가 되지 않으면 PubMed 등재가 안 되어 전 세계 연구자가 가장 흔히 찾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용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영문학술지가 아닌 한은 최근 Medline 등재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Medline 등재 학술지를 살펴보면 90% 이상이 모두 영문 학술지로 기타 언어 학술지는 매우 드물다. 영문인 경우는 PMC 통하여 PubMed 등재가 가능하므로, 많은 노출을 위하여서라도 SCIE 학술지에 만

축할 것이 아니라 영문으로 국제 유통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문으로 국내연구자만을 위한 내용으로 발행하여 지역 학술지로 꼭 남아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영문으로 발행하는 경우 투고 논문 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내 학술지가 계속 SCIE, PubMed 등재 국제학술지로 성장하므로 여기에 맞추어 국제 학술지가 되지 않으면 국내 국문 학술지에 투고를 바라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에 50종이 PubMed에 등재된다면 그 외의 학술지가 투고 받기는 전문의 시험에 강제 조항으로 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연구자가 영문 논문 작성이 힘들다면 국문 논문을 받아서 심사하여 채택하면 번역 및 영문 교열까지 학회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번역 및 교열 경비를 투고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학회에서 경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영문으로 투고하면 영문 교열을 학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SCIE 학술지라면 영문으로 투고하라고만 하여도 저자들이 영문교열까지 하여 투고할 것이므로 염려가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업적평가 방식에서 SCIE 학술지 우대 정책이 있기 때문이고 어떤 곳에서는 SCIE 논문 당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학술지 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초기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는 학회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분야에 따라 영문 논문 투고를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목적 및 범위가 국내 연구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목적 학술지로 운영하는 도리 밖에 없다. 어느 분야 또는 어느 학회 연구자의 논문 작성 역량 및 독자의 분포에 달려 있으므로 학회나 발행기관의 역량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학회에 따라서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 두 종을 발행하는 곳이 있다. 이 경

우 두 종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언어만 국문과 영문으로 나누고 그 성격이 비슷하다면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영문은 국제 학술지로 키우고 국문은 국내용으로 평생교육이나 다른 직종에 대한 훈련 및 전공의 논문으로 한다면 하는 차별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원저는 모두 영문 학술지에 신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 학회에서 두 종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회원의 종사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영문 한 종으로 집중하는 것이 낫다.

단순히 학술지를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및 과학 선진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PMC 또는 다른 Open Access Repository 통하여 전 세계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 굳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인류애를 발휘하여 학술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전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첫 걸음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논문의 질은 어차피 독자가 알아서 파악하므로 저자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디에 쓰일지 안 쓰일지 독자가 결정한다. 연구자가 자신의 업적 및 생존을 위하여 또는 흥미로 논문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고 영문교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영문으로 작성하는 자세가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나라 과학자의 명성을 높여가는 길이다. 국문으로 작성하니까, 영문 초록 보고 필요하면 번역하여 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이외 다른 언어 논문을 번역하여 보는 경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한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연구자는 결국 읽지 말라는 뜻과 같다. 국제학술지를 지향한다면 국문으로 발행하는 과학학술지는 특수한 목적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